

천국의 보물 창고

작성일 : 2010년 3월 5일 새벽 4시

작성자 : 주청명

(새벽기도를 하던 중 선생님이 앉아서 무언가를 쓰시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돌렸는데 나무 탈을 쓴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탄은 줄달린 인형처럼 머리, 팔, 다리 등에 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껏 느꼈던 그 어떤 느낌보다 섬뜩해서 무서웠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사탄을 통해 들어오고 선생을 부정하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계시를 해 주시듯이 예수님이 다가오셨는데 광채를 달고 팔에 못자국까지 보이면서 확인시켜 주었지만 그 하는 말로 사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계속 예수님 형상을 한 사탄이 나타나 계시하려 했고 분별해도 또 오고 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얼굴을 하고 온 사탄에게 ‘절대 피할 수 없는 성령의 검아 꽃혀라’해도 피하며 난 사탄이 아니란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왕사탄도 피할 수 없는 성령의 검아 꽃혀라’라고 말하니 그제야 이제껏 본 적 없는 큰 화살이 사탄을 관통했습니다. 그렇게 없애면 또 다른 왕 사탄이 예수님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사진을 보며 찬양하기 시작했고 오직 예수님과의 사랑에만 집중했습니다. 잠시 영의 상태를 보면 수 없이 선생님과 섭리를 악평하고 있었기에 영의 귀를 닫고 찬양만 했습니다.

어느새 제가 영계에 빠져들었는데 사막, 황폐한 곳 등 배경이 정신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난 내가 어디 있든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다.’는 마음을 먹자 완전한 어둠 속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빛을 보았는데 빛이 아니라 예수님 선생님을 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빛은 사탄이 쳐 놓은 덫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나타나셨는데 빛 속에 손만 보였습니다. 선생님 손을 잡고 가는데 어두워 보이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얼굴 부분에 사탄의 얼굴이 보여 기도하니 사탄의 얼굴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선생님 손을 놓도록 사탄이 속이려 했

던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며 선생님을 위한 기도를 하니 손만 보이던 것이 점점 팔이 보이고 몸이 보이더니 온몸이 보였습니다. 선생님을 따라가니 한 선을 경계로 밝은 초원으로 나왔습니다. 선 하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초원이고 왼쪽으로 가면 어둠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낙원으로 나왔다’ 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나 대화 중 “제게 의가 있고 공적이 있다면 그 의를 모두 드릴 테니 선생님이 쓰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보물 창고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산만큼 쌓여 있는 보물 옆에 제 보물인 듯한 보물 몇 십 개가 쌓여 있었는데 제 보물이 산처럼 쌓인 보물로 합쳐지더니 어떤 것이 제 것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원 모양이 있는 천장은 돔 형식으로 지어진 큰 건물이었고 창고에 비해 선생님이 개미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제 보물은 이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여쭙었습니다.)

** 선생님 말씀 **

네 보물이 어디 있어?

내 보물이니. 내 것 갖다 써.

천사들에게 말해 놓을 게.

이 보물 창고는 나의 사랑이다.

이 보물을 생명을 위한

나의 기도, 행실, 마음들이 공적이 되어 쌓인다.

그리고 생명을 살릴 때

생명을 살리는 조건으로 쓰인다.

아픈 생명, 힘들고 지친 생명 위해

이 보석을 쓴다.

(보석 위에 올라 가셔서 자랑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찬양 진실함으로 모은 보석으로....

(라고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보석이 모자라.

생명들 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해.
전 세계 60억 인구
천 년 동안 역사를 위해 사용하려니 부족하다.
그러니 날 위해 기도해 줘.
사랑아, 보석이 부족하다 해서 놀랐느냐?
사랑아, 생각해 보자.
단 하루를 살더라도
넌 얼마의 너의 삶을 살기 위한
경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네. 밥도 사먹어야 하고 잘 곳도 필요하고..)

온 인류를 책임진다는 것.
섭리인의 죄, 의의 공력, 구원, 자리 배치
이곳저곳 내가 쓸 시간이 너무 부족해.

생명을 위해 보석 모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날 위해 기도해 줘야 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서 더 많은 보석을 모을 수 있나요?)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 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깊은 말씀 받도록
더 큰 조건 세우도록
그 어떤 시간도 낭비하지 않도록

보석 어디에 쓰이냐고? 봐.

(금으로 된 트로피 모양의 보석을 손에 드셨습니다.
열병으로 아픈 사람이 영상으로 보였습니다. 위에는
영상이 보이고 아래에는 컴퓨터 같은 것에 다가가서
서 빨간 단추를 누르시니 자판기 같이 생긴 입구가
열렸습니다. 그곳에 트로피를 넣으니 그 트로피가 희고
투명한 선을 통해 내려가 그 열병 걸린 사람 영
혼에 흡수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열이 내리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봤지?
죄를 사해 줄 땐 일일이 내가 손으로 빨아준다.

(환희 웃으셨습니다)

몸이 열 개라도 바쁘고 힘들어.

(제게 보라색의 얼굴만한 보석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생명에게 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누
구에게 쓸지... 저는 관리하는 생명들을 떠올렸습니
다. '선생님이 보석을 하나밖에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 보석 하나 쓰는 것이 신중해지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보석 너 다 써!

(선생님, 부족하시잖아요.)

네가 네 것 다 쫓잖아.
난 더 채우면 돼.
그러니 기도해 줘.
그리고 너도 기도해서 계속 채워.

그러니 차원 높여 몸부림치는 거다.
차원 높이고 높여도 부족하며 아쉽다.
6000년 만의 역사의 차원을 높이기엔,
인류의 회복 위해 모으고 또 모은다.

(부족하다 하시니 제가 인상을 쓰며 걱정했습니다)

걱정 마.
매일 네 생각에 미치지 못할 만큼
쓰는 만큼 벌여 놓는다.
요즘 섭리인들 기도해 줘서 할 만하다.
혼자는 못하겠다는 말이 와 닿느냐?

섭리야. 사랑아
날 위해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그 덕에 힘내어 기도해서 겨우 충당하고 있어요.
세상 구원에 쓰고 써도 부족하지만
알뜰히 쓰니 할 만해요.
걱정 말고, 기도해 줘요. 그럼 돼요.

그 보석, 그 의, 그 사랑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니
날 위해 기도해 줘요. 사랑해요.
내 보석 모두 다 당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 쓸 거니까요. 사랑해요.

(보석의 용도를 여쭙었습니다)

죄 사함, 공적의 도움,
부족한 조건 채워 줄 때,
구원, 믿음, 사랑, 말씀 못 깨달을 때,
경제 도움, 육 아플 때, 영 아플 때,
죽어진 생명에 응급 처방.
그 밖에 수없이 많아.

(선생님만 기대하고 저희가 보석을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 부도가 나는 거지.
노름하고 마약하고 계집질하는 자식이
회개하지 않고 있는 대로
아버지 금고에 손대면 돈 줄 수가 없듯,
온 집에 가장 혼자만 돈을 벌면
그 만큼 가게가 힘들 듯한다.
내가 너희 사랑하니
아프고 빈곤한 것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만
그러면 너도 부도, 나도 부도다.

섭리사야, 일어나자!
각자 자기 벌 것은 벌고!
나도 힘껏 도울 테니 할 수 있다.
너 책임지니 걱정 마.
나 그 정도 능력은 돼.

(씨익 웃으시며 손으로 V자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괜히 사명 값 하는 게 아냐.
말씀 위해서도 기도해 줘요.

사랑아.
섭리인들 더 날 위해 기도해 주겠지?

(신이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바빠 이제 가자.
돈 벌러 가야 해.
야~ 저 보석 창고 가득 채워야지.
이런 창고가 네 생각보다는 많아
내가 걱정할까봐 말을 못해요.
그래도 함께 기도해 줘요.
응? 알았지?

내 것이 다 네 것이니까.
가자.

(다시 교회에 와 있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께서 더 깊은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하니 아까 본 그 창고 천장에서 수십 개의 보석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